

‘모두가 아는 역사… 그러나 누구도 몰랐던 이순신’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김한민 감독
‘노랑 : 죽음의 바다’

10년간 이순신 장군의 7년 해전을 영화에 담아온 김한민 감독. 그는 ‘명량’ (2014), ‘한산 : 용의 출현’ (2022)에 이어 ‘노랑 : 죽음의 바다’로 마무리했다. 3부작의 마지막 편답게 전편에서 보여준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차용하여, 스펙터클한 전쟁 신과 영웅의 고뇌 등을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는 등 김한민식 대하 드라마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영화 ‘노랑 : 죽음의 바다’의 시대적 배경은 임진왜란 (1592~1596) 직후, 일본의 제2차 침입인 ‘정유재란’ (1597~1598) 때다. 임란때 의병과 수군으로 침입하지 못한 곡창지대 전라도를 왜군은 집중 공략할 요량이었다. 결국 이순신 장군 없는 수군은 대패를 당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국토가 철저히 유린을 당하였다. 여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자가 쓴 논문 (2018 : 임진·정유재란기 약탈된 출판문화재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옮겨 본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일본군은 전공평가를 받기 위해 조선인의 코를 베어 소금에 절인 후 1000개씩 통에 넣어 일본에 보냈다. 당시 발급된 ‘코 수령증’과 교토 호코지에 있는 비충(코무덤)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교토에는 미미츠카(이충)도 있는데 이 역시 비충일 것으로 일본학자 吉田光邦은 유추한다. 5만에 달하는 코의 숫자 중 전라도 나주에서만 6006개의 코를 베어 보냈다는 기록을 보면, 우리 백성들의 고초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대목을 쓰면서 필자는 가슴이 미어졌고 풀리지 않는 체증처럼 아작겟 가슴 한켠에 얹혀 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초들이다 ...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직급이 강등되어 백의종군중이었다.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군이 이끈 수군은 1597년 4월 칠천량해전에서 전패를 당해 130척이던 배가 12척으로, 1만3000명이던 군사가 120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에,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9월 명량해전으로 대승을 거두어 바다를 지키다 1598년 11월 퇴각중인 일본군에 맞서 노랑해전을 치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에 의한 역사적 상식은 여기까지



‘노랑 : 죽음의 바다’.

롯데컬처웍스 제공

다. 영화 ‘노랑 : 죽음의 바다’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 어마어마한 현장감으로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스크린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100분에 이르는 해상전투 신은 이 영화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시각 특수효과(vfx) 등 컴퓨터 그래픽으로 공을 들여 세계 어느 나라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규모의 동양색이 가득한 독보적인 액션물로 완성되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동시에, 한 신 한 신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꾸려냈는지 보이는 영화였다.

이 영화가 뛰어넘은 또 한 가지. 한·중·일 3국의 시각을 고루 담았다. 명군과 조선군, 왜군의 시점으로 이어지는 전투 신을 통해,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여백이 있었다. 더불어, 3국의 장수들이 보여주는 내공이 탄탄하게 틀을 이루고 있었다. 지장, 용장, 현장으로서의 이순신(배우 김윤석)이 갖춘 품격 연기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배우 정재영)의 유연한 풍모는 인간적이었고 부도독 등자룡(배우 허준호)의 장수로서의 정신은 올곧아 보였다. 왜군의 노장 시마즈 요시히로(배우 백운식)의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도 돋보였다. 이들의 내공연기는 주역 못지 않아 조화로웠다.

영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어린 후계자를 부탁하는 순간, 도쿠가와와 반역을 깨닫는 도요토미. 그런가 하면 노랑해전에서 시마즈는 본진에 위험에 처하자 자국의 선발대를 향해 포를 쏜다. 시마즈는 고니시(배우 이무생)의 부하를 징벌하고, 고니시는 시마즈를 돕지 않고 회군한다. 이는 마치 일본인들의 냉정하고도 비열한 정치적 전략적 속내로 채워진 대하소설 ‘대망’을 보는 듯했다. 이순신 장군을 위인전에서 꺼내어준 작가는 김훈이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시작하는 ‘칼의 노래’ (2001)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란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영혼, 정신을 살필 수 있는 책이다. 책이 영화를 만드는 원전 콘텐트라면 영화는 다시 책을 부르기도 한다. 내일은 동네 도서관에서 ‘칼의 노래’를 찾아 봐야겠다. (12월 20일 개봉).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학대 겸임교수·문화학박사

요란하지 않게 차근차근

벌써 12월 말이다. 이제 2023년도 며칠만 남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올해도 참으로 바쁘게 살았다.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행복을 담보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아침부터 밤늦도록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절대 없다.’라는 진리는 우리를 시계 문자판에 기대어 끌고 또 달리게 했다. 진짜로 하를 한 번 쳐다볼 틈도 없이.

한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이 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생각에 시간의 흐름을 재촉한 적도 있었다. 더딘 시간을 채근한 것이다. 실러(F. Schiller, 1759~1805)는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온다고 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전은 우리에게 시간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주체자로서의 역할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일들에 편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사람들은 늘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그리고 맡겨진 일들에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렇지라도 지금, 현재가 내게 맡겨진 최고의 순간이며 이 시간이 나의 존재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오늘이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의 주인이 됐다는 것이다. 흐르는 초·분침을 나름의 방법으로 붙잡고 목적하고 정해진 방향으로 묵묵히 구도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자기만의 철학으로 세상을 향해.

오래전 남태평양의 머나먼 섬, 타히티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아쉬워하며 지나간 흔적을 더듬는 이가 있었다. 그는 건강악화와 빈곤 등에 힘들어하던 중 딸의 죽음을 전해 듣고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유작을 남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걸작으로 남았다. 프랑수아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P. Gauguin, 1848~1903)이다. 이 작품은 인생무상(人生無常)의 답을 찾기 위한 그만의 몸부림이었고 처절함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늘 질문하고 답해 왔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L. v. Beethoven, 1770~1827)도 음악가로 확고한 입지를 다질 무렵 청각장애를 앓게 된다. 그의 나이 30세 중반을 넘기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써 내려갔지만,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답하고 자신의 운명의 문을 두드렸다. “따다다 단! 따다다 단!”, 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 <교향곡 제5번 c단조>, 일명 ‘운명 교향곡’이다.

희망의 등불로 여겼던 나폴레옹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어둠과 고난의 그림자가 그를 엄습했지만, 그 많은 시련과 고뇌를 씁 없는 열정으로 그는 운명을 개척해 나갔다. 이 곡은 베토벤의 처절한 인생사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운명 교향곡’은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한편의 서사가 아닌가 싶다.

신분에 대한 열등감과 청각장애, 가난 등의 이유로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며 암울한 내적 고통을 새로운 희망의 예술 세계로 승화시켜 나간 것이다. 예술은 삶의 역사이자 삶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이다.

특히 삶에 있어 음악은 인생사 모든 것에 위로이며 감동이다. 음악은 시·공간을 반영하고 시대사상과 가치를 드러내며 영적인 위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겨울이 깊어간다. 2023년 마지막 한 주는 요란하지 않게 그리고 차근차근 나를 돌아보면 서 다가오는 운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나만의 힘을 비축하기를 희망한다.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ilbo.com (062)510-0321

배움은 부패, 배부른 청렴

미까지 확장 될수 있다. 국가권익위는 청렴을 지키기 위한 6가지 덕목으로 공정, 정직, 절제, 배려, 책임, 약속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청렴 정도는 어떨까. 지난해 대한민국은 OECD ‘정부신뢰도’에서 20개국 중 7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국 중 31위(OECD 38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두 지표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나 한국 투명성기구는 공직사회와 경제활동 지표가 악화됐다는 우려와 함께 반부패·청렴리더십 발휘,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의 엄격한 시행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청렴은 형이상학적 목표가 아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18년도 서울대 연

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CPI 10점 상승 시 경제성장률이 0.5% 이상 오른다.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렴은 국가신뢰의 원동력이다. 신뢰가 기반되었을 때 정부정책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말발 서는 정부’가 될수 있다.

빛물 새는 집에 살며 소를 타고 출근하던 맹사성만이 청렴이 아니다. 현대의 적극적인 청렴은 모두가 배부를 수 있다. 부패는 소수만의 배부름이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피지선이 막혀 생기는 낭중이다. 고름은 도려내야 한다. 청렴은 더 이상 배움지 않는다. 정부의 반부패 리더십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됐을 때 모두가 배부른 청렴이 될수 있다.

발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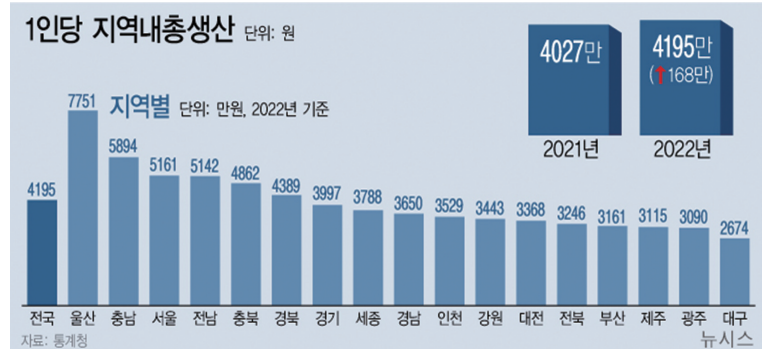
김민석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



모 정치인이 정치자금 관련해 구속,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시시비비는 사법부에서 가릴 일이나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첫 번째로 꼽히는 공직자의 덕목이니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희나 맹사성 같은 명재상들이 오늘날까지 청백리로 추앙받는 것이 그 방증이다.

청렴은 사전에 의하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소극적 의미로 단순히 향응받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것에서 공정한 서비스 제공, 권한 남용 금지, 투명한 정보공개 등 적극 의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